

姚鼐의 고민 톺아보기*

- ‘桐城文派’에 대한 검토 -

백 광 준**

<目次>

- | | |
|----------------------|---------------------|
| I. 들어가며: 文學史 서술에 대하여 | III. 姚鼐가 생각한 학술지형 |
| II. 姚鼐의 문제의식 | IV. 桐城派와 古文 |
| | V. 나가며: 桐城派는 ‘文派’인가 |

I. 들어가며: 文學史 서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桐城派는 ‘文派’로 이야기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시에 비해 문장에 장기를 가졌음을 뜻한다.¹⁾ 또한 나아가 시문과 각종 문론 등을 통해 그들이 문장에 쏟은 노력은 여러 문학사가 그들에게 부여한 ‘桐城文派’라는 호칭의 소이연을 잘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동성문파’라는 호명 속에서 ‘桐城’은 또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는 동성에 뿌리를 둔 일련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계보가 인정

* 이 논문은 2016년도(연구년 표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6 sabbatical year research grant of the University of Seoul.)

**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부교수

1) 참고로 상대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시에서도 나름의 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며,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동성시파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밝혀둔다.

될 때에야야 충족될 수 있는 호칭이다. 이와 관련한 보편적인 설명들은 이렇다. 동성파는 청대의 대표적 고문집단으로서, 멀리 歸有光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동성 출신들인 方苞, 劉大櫟를 거쳐 姚鼐에 의해 집대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 바탕에는 방포가 義法說을 제기하였고 그것이 동성파의 주요 문론으로 자리 잡았으며, 요내에 이르러 당시 맹위를 떨치고 있던 고증학과에 대항해 書院을 중심으로 桐城 家學을 뿌리내렸다는 것이다. 周中明이 방포를 ‘동성파의 시조’로, 요내를 ‘동성파의 집대성자’로 명명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실 이러한 시각의 아래에는, 동성문파의 구축을 위한 요내의 노력이 전제되어 있다. 동성문파를 정초한 핵심인물로 요내를 바라보는 고래의 관점들은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최근 陳平原은 이를 보다 정교하게 논구한 바 있다. 그는 요내의 지향을 새롭게 검토한 뒤, 요내가 동성파를 정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동성파 계보를 구축하였는지를 흥미롭게 해석해낸 바 있다. 이를 위해 그가 주목했던 문장은 <劉海峰先生八十壽序>로, 요내가 四庫館을 그만두고 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쓰였다는 점에서 요내의 향후 학술 지향을 엿볼 수 있는 글이라고 강조하였다. 말하자면 요내는 동성 선배인 유대피와의 어렸을 때의 교류의 기억을 상기하며, 당시 명성이 이미 높았던 방포와 자신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완성을 위한 가교 역할을 그에게 부여하였고, 이를 통해 동성 학파의 구축을 위한 文統의 확립의 기획을 암암리에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곧 방포와 요내가 생전에 직접적으로 만난 바가 없었기에, 유대피라는 가교 역할의 인물을 세우고, 어렸을 때 그로부터 학문을 배운 바 있다는 내력을 대신 채움으로써 방포에서 자신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맞춤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덧붙여 요내의 이와 같은 기획과 문파 구축의 욕망은 당시 학술지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것이나, 잔치 자리에 쓰일 축수의 글인 만큼 일정한 과장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壽序’라는 문장을 택함으로써 학술적 시비를 피해가는 요내의 ‘지능적 선택’에 대해서

감탄의 목소리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현행 문학사나 관련 연구에서의 설명들을 종합하면, 요내가 동성의 계보를 기획함으로써 명실상부 ‘동성문과’가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아스러운 점은, 당시 요내 스스로도 누차 고문을 하는 이가 없다는 탄식을 내뱉고 있었다는²⁾ 것이다. 그렇다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문과 설립의 뜻을 세우고 결국 성공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 합리적인 설명일까? 이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동성과가 득세하였고, 요내의 최초 기획안은 보기 좋게 성공을 거두었음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18세기 말까지도 그의 실험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³⁾

그렇게 볼 때, 요내의 기획과 관련한 여러 문학사의 멋진 설명들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술 지형으로 볼 때, 결코 녹녹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 姚鼐의 문제의식

이를 위해서는, 당시 요내의 진정한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참고할 만한 사건은 당시 대학자였던 戴震과의 교류이다. 당시 대진은 주류학술인 고증학과의 중심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만년에 조정의 관리가 되어 《四庫全書》를 편찬하였고, 그 저서 또한 모두 출판되어 세상에 유통되는”⁴⁾ 등 그 위상과 영향력이 그야말로 대단했던 때였다. 그런 대진에게 요내는 일

2) 姚鼐, 〈復魯絮非書〉: “往與程魚門, 周書昌嘗論古今才士, 惟爲古文者最少, 苟爲之必傑士也.”, 姚鼐, 〈徐六階時文序〉: “近世天下都不復重爲文” 등

3) 陳用光: “今世之爲古文學者至少.”(王達敏 著, 《姚鼐與乾嘉學派》, 179쪽 재인용)

4) 姚鼐, 〈程綿莊文集序〉: “晚以修四庫書得官禁林, 其書亦皆刻行於世.”

찍이 스승으로 섬기겠노라는 뜻을 전하며 고증학에 대한 배움의 열정을 불태웠다. 그러나 대진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고증학과 결별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초기 대진에 대한 추송과 달리, 후일 대진에 대한 요내의 언급은 비판일변도로 바뀌고 있어서, 사고관 내에서의 요내의 행보 변화와 맞물려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요내의 비판은 다른 지점을 향하고 있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곧 “지금 程廷祚가 논한 바를 보면, 학문을 좋아하고 생각이 깊으며 博學強記하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예전에 그가 정주를 비방하기를 좋아한 것은 안타깝다. ……급기야 갈수록 의견이 더욱 치우쳐서, 정주의 말을 더는 깊이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 문사가 마침내 지나친 폐단으로 흘러가는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다. 최근 休寧의 戴震은 그 재주가 본래 세상을 능가하지만 그 논의의 편벽됨이 세상보다 심하다. 정정조의 견해도 대체로 대진과 가깝다.”⁵⁾ 고 말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명성을 추구하기 위해 정주에 대한 비판을 일삼는다고 불만스러워하였다. 급기야 그는 그들이 후사가 없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할 만큼 분노를 터뜨렸다.⁶⁾ 불량한 학술 태도에 대한 반감, 그래서 이것이 초래할 지도 모를 학술 전반의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통감한 바, 그들에 대한 극도의 비판을 불사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독설은 대진이 스승 제안을 거절한 사건과 맞물리며, 요내가 한학자들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된 근본적 이유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고증학에 대해 손을 내밀었던 요내가 한학 진영으로부터 거절을

5) 姚鼐, 〈程綿莊文集序〉: “今觀綿莊之立言, 可謂好學深思, 博聞強識者矣, 而顧惜其好非議程朱, ……及其久意見益偏, 不復能深思孰玩於程朱之言, 而其辭遂流於蔽陷之過而不自知, 近世如休寧戴東原, 其才本超越乎流俗, 而及其爲論之僻, 則過有甚於流俗者. 綿莊所見, 大抵有似東原.”

6) 姚鼐, 〈再復簡齋書〉: “其人生平不能爲程朱之行, 而其意乃欲與程朱爭名, 安得不爲天之所惡, 故毛大可·李剛主·程綿莊·戴東原, 率皆身滅嗣絕, 此殆未可以爲偶然也.”

당하자 그때 겪은 수모를 결코 잊지 않고, 두고두고 원한을 품게 되었으며 급기야 사고관을 탈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내는 대진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뒤에도 대진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더라도, 서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때로는 대진에게 자신의 방법론이나 학술적 관점을 피력하여 동의를 얻기도 하였고, 그에게서 긍정적 평가를 얻은 뒤 그에 입각하여 진행한 연구에 대해 이미 대진이 작고한 뒤인지라 대진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음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도 하였다.⁷⁾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보편적 설명들은 논리적 측면에서 일정한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사고관 내에서 요내는 여전히 성리학 위주의 입장을 견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그의 작업은 한학자 위주의 검토 관원들에 의해서 거둬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증학파에 대해 요내가 불만을 품었으리라고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 그러나 요내 자신 역시 고증학에 대해 남다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⁸⁾ 게다가 학술적 차원에서 시종 긍정적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학문으로서 고증학에 대한 요내의 긍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학사나 관련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바이다. 문제는 거개가 약간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 지점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요내의 고민 그리고 동성파의 탄생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는 데 있다. 기실 요내의 문제의식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7) 姚鼐, 〈漢廬江九江二郡沿革考〉(《惜抱軒文集》), 13

8) 실제로 요내는 고증에 관한 연구 논문의 성격을 지닌 글(〈漢廬江九江二郡沿革考〉, 〈五嶽說〉 등)도 여러 편을 남기고 있으며, 특히 그의 문집에 상기 논문들이 전면 배치되어 있다는 점 등은 고증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놓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程綿莊文集序〉에 담겨있는 것처럼, 문학사에서 주로 거론되는 그의 대표적 관점은, 정주가 공맹의 도통을 잇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주를 비판 또는 부정하는 어떠한 논의도 성인의 뜻에 위배되는 처사라는 것이다.⁹⁾ 요내는 정주를 통해서 도의 실마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정주를 떠나서는 성인의 뜻에 다다를 수 없다는 관점을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요내의 견지에서 정주에 대한 비판은 성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렇기에 정주를 물리치는 것은 자신의 학술적 명성을 세우는 데 급급한 불성실한 사인의 자세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필연적 결과이다.

이런 관점 속에는 말할 것도 없이 요내의 사상에 대한 기존의 보편적 시각, 곧 정주를 추송하는 뚜렷한 송학의 입장이 피력되어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그의 고민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왜 그가 송학을 추송하였는지에 대한 세밀한 이해 없이는 동성파는 그저 송학에 대한 절대적 신봉의 뜻을 가진 수구적 존재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들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작금의 동성파에 대한 많은 연구들 속에서 동성파가 처한 운명이다. 그러나 요내는 이렇게도 말한 바 있다. “정주가 귀할 수 있는 까닭은 그 말이 정밀하고 위대하여 성인의 뜻을 터득한 것이 많기 때문이지, 내가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성현의 뜻을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면, 비록 정주를 버리더라도 옳다.”¹⁰⁾ 이 말은 정주에 대한 추송이 요내가 향한 궁극적 도달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다시 말해, 정주는 성인의 뜻을 적절히 보여주기

9) 姚鼐, 〈程綿莊文集序〉: “孔子之道一而已! 孔子沒而門弟子各以性之所近, 爲師傳之眞, 有舛異交爭者矣. 況後世不及孔子之門, 而求遺言以自奮於聖緒墜絕之後者與? 其互相是非, 固亦其理. 然而天下之學, 必有所宗. 論繼孔孟之統, 後世君子必歸於程朱者, 非謂朝廷之功令不敢違也, 以程朱生平行己立身, 固無愧於聖門, 而其論說所闡發, 上當於聖人之旨, 下合乎天下之公心者, 爲大且多. 使後賢果能篤信, 遵而守之, 爲無病也. 若其他欲與程朱立異者, 縱於學者有所得焉, 而亦不免賢智者之過. 其下則肆焉爲邪說, 以自飾其不肖者而已.”

10) 姚鼐, 〈復曹雲路書〉: “夫程朱之所以可貴者, 謂其言之精且大而得聖人之意多也, 非吾徇之也. ……苟欲達聖賢之意於後世, 雖或舍程朱可也.”

유의미한 사상이라는 점에서 선취된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성현의 뜻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정주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갈한 것이다. 비슷한 논지는 다른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학자들이 정주의 뒤에 태어나, 정주 덕분에 공맹의 뜻을 깨달았으니, 정주는 우리의 스승이나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정주의 말에 혹여 잘못이 있다면, 내 어찌 반드시 무조건 따르겠는가? 정주 또한 어찌 후인들이 논하여 바로잡기를 바라지 않겠는가?¹¹⁾

역시 마찬가지로 공맹의 뜻에 도달하기 위한 가교로서 정주는 호출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옛 성현에서 공맹을 거쳐 정주로 이어지는 道統의 인식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런 그의 인식 속에서 정주에 대한 위배가 유학에 대한 전면적 부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음은 필연적 귀결일 수밖에 없다. 그의 독설은 바로 이런 사유로부터 터져 나온 것이었다.

이런 요내의 사유는 그의 학술 관점으로 확장되어 보다 체계적인 열개를 갖추며 전개되었다. 그가 말한 ‘三者合一說’과 그에 얽힌 관점들은 이러한 그의 정치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할 때에 라야 그의 생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Ⅲ. 姚鼐가 생각한 학술 지형

요내의 학술 관점을 담고 있는 대표적 논의는 바로 이 ‘삼자합일설’이다. 곧 그는 ‘義理’, ‘考據’, ‘詞章’ 이 세 가지를 학술의 주요 영역으로 내세웠다.

나는 일찍이 천하의 학문에는 의리, 문장, 고증의 세 갈래가 있어서 서

11) 姚鼐, 〈再復簡齋書〉: “儒者生程朱之後, 得程朱而明孔孟之旨, 程朱猶吾父師也. 然程朱言或有失, 吾豈必曲從之哉? 程朱亦豈不欲後人爲論而正之哉?”

로 지향은 다르지만 공히 내칠 수 없다고 논한 적이 있다. 하나의 길에서 갈래가 나뉘고 여러 일파가 만들어지고 끝내는 수천의 일파에 이른다. 같은 일파라 하더라도 택한 경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대체로 할 수 있는 것을 붙들고서 할 수 없는 것을 질타하는 것은 비루한 것이니, 반드시 겸비해야만 바야흐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¹²⁾

이 인용문에서는 세 학술 영역 모두가 공히 간과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러한 학술관점과 앞서 본 요내의 송학에의 지향이 도대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요내는 이렇게 답하였다.

학문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의리, 고증, 문장이 그것이다. 고증으로 판단하면 적을 맞서기에 유리하니 변호하는 이가 한 마디도 꺼낼 수 없게 하지만, 학자들로 하여금 깊이 깨달아 흡족히 사람의 마음에 들어맞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의리, 문장에 보다 달려있다.¹³⁾

이 인용문은 위에서 강조된 세 학문 영역 간에 일정한 층차가 있음을 알려준다. 곧 고증이란 마음에 대한 탐구와 관련되기 보다는 학술적 방법론으로 상정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송학과 문장의 영역이 보다 본질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행간을 관통하고 있다.¹⁴⁾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증에 대한 수용과 함께 요내가 ‘의

12) 姚鼐, 〈復秦小峴書〉: “鼐嘗謂天下學問之事, 有義理文章考證三者之分, 異趨而同爲不可廢. 一塗之中, 岐分而爲衆家, 遂至於百十家. 同一家矣, 而人之才性偏勝, 所取之區域, 又有能有不能焉. 凡執其所能爲, 而毗其所不能者, 皆陋也, 必兼收之乃足爲善.”

13) 姚鼐, 〈尚書辨僞序〉: “學問之事有三: 義理, 考證, 文章是也. 夫以考證斷者, 利以應敵, 使護之者不能出一辭. 然使學者意會神得, 覺犁然當乎人心者, 反更在義理, 文章之事也.”

14) 앞서도 지적했듯이, 여기에서 보이는 고증학파에 대한 긍정은 문학사에서도 널리 다루지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들에 의해 당시 세력을 얻고 있는 고증학파를 수렴함으로써 한학 일변도의 학술 지형을 문학 중심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고민의 일환이라는 맥락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리'를 '고거', '사장'과 동일한 반열에 놓은 점이다. 그가 송학을 학술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비춰진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시선이 단혀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일 따름이다. 그는 “명대 유학자들은 그저 송유의 논의에만 귀 기울일 뿐, 모든 漢代, 唐代의 箋注는 물리치고 보지 않았으니, 그 병폐가 참으로 험악하였다.”¹⁵⁾ 고 말하기도 하였다. 작금의 문학사에서 소개되고 있는 ‘宋學至上’의 요내에 갇히면, 위에서처럼 송학에 대해 상대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대목을 마주하였을 때 과연 그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요내에 대한 인식의 잘못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요내가 던진 언술 속에 우리가 스스로 간혀버린 탓이다. 다시 말해서, 요내는 분명 삼자합일설을 표방하였지만, 그의 지상과제는 결코 저 세 학술 영역 내부에 머물러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에 저 세 영역은 병치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삼자를 넘어 그의 시선이 가닿은 곳은 어디일까?

義理를 論究하면, 비록 躬行에 미치지 못해도 결국은 궁행에 가깝다. 文章, 考證의 경우는, 그 지극한 바가 궁행에 반드시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의리의 학문에 비교하면 역시 요원하다. 공자가 “학문을 닦지 않음을 나는 걱정한다”고 한 것은 의리의 학문을 일컬은 것이 아니겠는가!¹⁶⁾

그에게서 학술의 궁극적 지향점은 다름 아닌 ‘躬行’이었다. 물론 의리는 고거, 사장에 비해 우위에 있지만, 이들 세 영역의 가치를 나누는 본질적인 기준은 궁행에 놓여 있다.

15) 姚鼐, 〈復孔搗約論禘祭文〉: “當明時, 經生惟聞宋儒之說, 舉漢唐箋注屏棄不觀, 其病誠隘.”

16) 姚鼐, 〈復林仲騫書〉: “言義理雖未逮于躬行, 而終于躬行爲近. 若文章·考證之事, 舉其極亦未必無益于躬行也, 然而以視義理之學, 則又遠矣. 子曰: ‘學之不講, 吾憂也’, 非義理之謂乎?”

심오하여 정통해야 하는 것은 의리이다. 압박하여 분별해야 하는 것은 진장, 명물 등 천하에 있는 것들이다. ……지금 그대 학문의 요체는 涵養에 있을 따름이다. 명성과 영리가 그 사이에 간여하지 않고 널리 오랜 세월을 기약할 수 있다면 필경 시속과 달리하고 옛 것에 통달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이렇듯 요내의 시선이 의리, 문장, 고증을 넘어서 궁행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궁행의 기준이 정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들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종합해 볼 때, 요내는 결국 ‘궁행’을 자신의 학술의 궁극적 요체로 삼았으며, ‘의리’, ‘고거’, ‘사장’은 이를 위한 주요 학술영역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⁸⁾

秦漢 이래로 경전을 해설한 유가가 많았는데, 그 모이고 나뉜 것이 참으로 한 갈래가 아니었다. 송대에 정주가 등장하여 실로 고인의 심오한 뜻에 대해 터득한 것이 많았으며, 문사에 흐르는 실정을 세심히 구하여서 또한 더욱 함당하였으니, 옛 유가들의 옹졸하고 막혀서 실정에 부합하지 못한 것과 같지 않았으며, 또한 평생 수양하고 덕을 닦았으며 실로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할 수 있었기에 후세의 귀감이 되었다.¹⁹⁾

17) 姚鼐, 〈答魯賓之書〉: “邃以通者, 義理也. 雜以辨者, 典章·名物凡天地之所有也. ……今足下爲學之要, 在於涵養而已! 聲華榮利之事, 曾不得以奸乎其中, 而寬以期乎歲月之久, 其必有以異乎今而達乎古也.”

18) 이런 견지에서, 王達敏은 요내의 학술에 관한 방대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궁행이 요내의 학술 지평 속에서 상위에 놓인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王達敏 著, 《姚鼐與乾嘉學派》(北京: 學苑出版社, 2007), 172-174쪽.) 그러나 그는 통찰력 있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소개한 〈再復簡齋書〉에서 요내가 내뱉은 독설 등에 주목하여, 당시 고증학자들의 기본 소양의 부족이라는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해석함으로써 요내가 말하고자 하는 함의를 다소 축소 해석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19) 姚鼐, 〈復莊松如書〉: “自秦漢以來, 諸儒說經者多矣, 其合與離固非一途. 逮宋程朱出, 實於古人精深之旨, 所得爲多, 而其審求文辭往復之情, 亦更爲曲當, 非如古儒者之拙滯而不協於情也, 而其生平修己立德, 又實足以踐行其所言, 而爲後世之所嚮慕.”

위의 인용문은 지금까지 우리는 논의한 바를 일목요연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곧 요내는 이 글을 통해 자신이 정주를 받아들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앞서 논한 바, 정주학은 도통으로서 옛 사람들의 심오한 뜻을 이해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매개이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좀 전에 다룬 바, 정주가 몸소 보여준 수양과 공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도통과 공행이라는 요내의 주된 지향점은 정주라는 고리에서 하나로 실현되었으며,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정주는 그의 학술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IV. 桐城派와 古文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요내는 문장 자체보다도 성현의 뜻을 밝히고 실천공행하는 데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내가 품은 동성파의 애초 기획은 ‘文派’ 구축을 지향한 것이었을까, 나아가 동성문파라는 호명은 타당한 것인가 하는 데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문파의 관건인 文章은 요내의 기획과 도대체 어떻게 접합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앞서 이미 삼자합일설을 통해 문장이 의리, 고증과 더불어 당당히 학술 영역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의리, 고증의 영역에서 문장의 부족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병폐를 강조하였다.²⁰⁾ 우리에게 친숙한, 고문가로서의 요내의 면모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20) 姚鼐, 〈述菴文鈔序〉: “鼐嘗論學問之事, 有三端焉: 曰義理也, 考證也, 文章也. 是三者苟善用之, 則皆足以相濟; 苟不善用之, 則或至於相害. 今夫博學強識而善言德行者, 固文之貴也; 寡聞而淺識者, 固文之陋也. 然而世有言義理之過者, 其辭蕪雜俚近, 如語錄而不文; 爲考證之過者, 至繁碎繳繞, 而語不可了當, 以爲文之至美, 而反以爲病者何哉? 其故由於自喜之太過而智昧於所當擇也. 夫天之生才雖美, 不能無偏, 故以能兼長者爲貴, 而兼之中又有害焉. 豈非能盡其天之所與之量而不以才自蔽者之難得與?”

그러나 요내의 지향은 단순히 전통적 고문가의 그것은 아니었다. 그의 생각은 기존 고문가들과 결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은 技藝일 따름으로 도가 아니지만, 옛 사람들은 이를 빌어 도를 전달 하였다. 그 뒤 문이 지극해지면서 점차 도와 멀어졌다. 韓愈, 歐陽修라 할 지라도 이런 병폐를 면치 못하였으니, 하물며 그 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²¹⁾

고문가의 대표적 인물들인 韓愈, 歐陽修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이유는 그들에 의해서 문과 도가 분리되었다는 데서 찾아지고 있다.²²⁾

문의 필요성에 대해 요내 역시 인지하고 있지만, 그의 사유 속에서 문장은 분명 의리를 넘볼 수 없는 보조적 위치, 아니면 ‘기예’의 수준으로 상정되고 있으며, 그런 견지에서 기존 고문가, 특히 〈原道〉를 남기며 도통의 재건을 기획했던 한유와 고문의 부흥을 선도했던 구양수마저도 요내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요내는 고문가보다는 오히려 정주의 편에 좀 더 가까이 서 있는 셈이다. 결국 그에게서 보다 궁극적인 것은, 분명 문장이 아니라 도였던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팔고문에 대한 그의 관점 역시 이해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팔고문은 고염무로부터 시작하여 청대 후기로 갈수록 학술을 황폐화한 주범으로 극심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요내의 인식은 달랐다.

원명 이래로 모두 그 학문으로 선비를 선발하였는데, 벼슬길이 한 번 열리자, 그 학문을 닦는 것을 부귀로 나아가는 것으로 여길 뿐이었다. 그 말

21) 姚鼐, 〈復欽君善書〉: “夫文技耳, 非道也, 然古人藉以達道. 其後文至而漸興道遠, 雖韓退之·歐陽永叔, 不免病此, 況以下者乎.”

22) 이 대목은, 송대에 주자와 소식 두 사람이 문과 도를 둘러싸고 벌인 논쟁과 겹친다.

에 잘못이 있어도, 오히려 받들고 감히 조금도 어기려고 하지 않고, 그 뛰어난 점도 그것이 왜 뛰어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수백 년 이래 학자들의 누습이다.²³⁾

성리학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가 시행되어 팔고문이 치러졌으나, 이는 정주의 잘못도 아니요, 참된 학문을 도외시하고 공명에만 급급하는 학자들의 학문 태도가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요내는 그러한 병폐의 전형적인 모습을 당시 고증학자들에게서 발견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고증학자들 역시 불만스런 눈초리를 성리학을 신봉하는 학자들에게 쏟아놓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애초 과거 공부를 혐오하여 세상의 정주를 떠받드는 이들이 모두 제도에 사로잡혀 반드시 사리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고 의심하였다.²⁴⁾

이는 당시 고증학 진영과 성리학 진영 간 학술 태도에 대한 근본적 간극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학자들이 보기에, 요내 등 송학을 주창하는 이들은 청조의 제도에 영합하여 팔고문에 투신하고 있었던 것이며, 반면 자신들은 세상에 팔리는 학문을 하기 보다는 학자 본연의 모습으로 아카데미즘에 바탕을 둔 학술, 곧 고증학에 전념하고 있다고 자부하였다. 하지만 요내가 보기에, 그들의 학술 방법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정주를 공격하여 명성을 추구하고 세상을 도외시하는 것에 다를 아니었다.

나아가 팔고문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그가 문장의 각도에서가 아니라 도통의 발현이라는 각도에서 팔고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도달한 결론

23) 姚鼐, <復莊松如書>: “元明以來, 皆以其學取士, 利祿之途一開, 爲其學者以爲進趨富貴而已, 其言有失, 猶奉而不敢稍違之, 其得亦不知其所以爲得也, 斯固數百年以來學者之陋習也.”

24) 姚鼐, <程綿莊文集序>: “蓋其始厭惡科舉之學, 而疑世之尊程朱者, 皆束於功令, 未必果當於道.”

이기도 하였다.²⁵⁾ 요내는 조정의 시책에 부응하여 정주학 그리고 팔고문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정주학이 도통이기에 신봉하고 팔고문 역시 긍정한 것이다. 바로 “나라에서 경의로 인재를 선발하는 법령을 시행한 것은 사람들이 성인이 전한 바를 오해 없이 해독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에게 팔고문은 과거시험용 문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반열에 위치한 최고의 이상적 글이었다.

사인 중에 팔고문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버리고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많다. ……나라에서 경의로 천하의 선비들을 이끈 진실로 그들 총명하고 뛰어난 선비들을 이끌고자 함인데, 오히려 그들의 외면을 사고 있다. 오로지 어리석고 과문하여 옛 것을 공부하기에 부족한 이들만이 오히려 과거에 뜻을 세우는 데 급급하여 근자에 과거에 급제한 이들의 방법을 가져다가 서로 흉내내고 있다. 이렇다면, 경의가 어찌 날로 악화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총명하고 뛰어난 선비들이 송유의 학문을 지켜 위로 성인의 정수에 이룬다면, 지금의 문체라도 옛 글쓴이의 지극한 문장의 경계에 통달할 수 있다. 팔고문이 사부, 주소를 수천 배 능가한다는 데 무슨 설명이 필요할 것인가! 가히 지극히 뛰어난 문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가 제도적으로 중시하는 것을 따르는 것인데도, 사인들은 오히려 이를 매우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²⁶⁾

앞에서도 보았듯이, “文章, 考證의 경우는, 그 지극한 바가 궁행에 반드시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의리의 학문에 비교하면 역시 요원하다.”²⁷⁾는

25) 姚鼐, 〈鄉黨文擇雅序〉: “夫國家所以設經義取士之法者, 欲人人講明於聖人之傳不謬而已。不達經說, 而泛爲文, 何取於是文哉? 如先生著書錄文, 以明經爲志, 良自足補助朝廷教士必使成學之意。”

26) 姚鼐, 〈停雲堂遺文序〉: “士不知經義之體之可貴, 棄而不欲爲者多矣! ……國家以經義率天下士, 固將率其聰明才傑者爲之, 而乃遭其厭棄。惟庸鈍寡聞, 不足與學古者, 乃促促志於科舉, 取近人所以得舉者, 而相效爲之。夫如是, 則經義安得而不日陋? 苟有聰明才傑者, 守宋儒之學, 以上達聖人之精; 則今之文體, 而通乎古作者文章極盛之境。經義之體, 其高出詞賦箋疏之上, 倍蓰十百, 豈待言哉! 可以爲文章之至高, 又承國家法令之所重, 而士乃反視之甚卑, 可歎也。”

27) 姚鼐, 〈復林仲騫書〉: “言義理雖未逮于躬行, 而終於躬行爲近。若文章·考證之事,

언급은 부차적인 문장의 위상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다. 그래서 각 문체의 가치는 의리와의 연계 속에서 가능된다. 팔고문의 지고한 위상은, 그가 생각하는 문장이 덕행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가치 속에서 의리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절대적 필요성을 가진 매개로서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에 이르면, 요내가 문장보다 성리학적인 세계의 복원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송학에 대한 그의 학술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궁구하는 학술적 성과들은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 <九經說> 등 몇 편의 학술적 성과를 남기긴 하였지만,²⁸⁾ 전문적 성리학자라고 보기는 여전히 곤란하다. 그렇다면 성리학을 표방하고 공행을 내세우는 요내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는 것일까? 다음 글에서 그의 생각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선생은 일찍이 桐城에 한 번 들러 마을에서 내 백부님을 뵈었는데, 마침 내가 다른 곳에 갔을 때였다. 백부님은 내게 “永君은 강직하여 신실한 군자로다.”고 말하였다. ……(그의 글을) 읽어보니, 격식에 부합하여 세속의 경계를 넘었으며 음조는 부드럽고 우아하며 감정은 깊고 체제는 바랐으니 백부님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더욱 믿게 되었다. ……하물며 구구한 문장의 일을 들어 그저 시인이라 칭한다면 어찌 선생의 뜻에 부합하겠는가. 하지만 후대의 배우는 이들이 선생의 뜻과 사람됨을 알고자 한다면, 그 시를 읽으면 또한 대체로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²⁹⁾

이 글에서 요내는 글보다도 그 사람됨에 마음을 주고 있고, 그 사람됨의 기준은 군자로서의 모습에 두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이러

舉其極亦未必無益于躬行也，然而以視義理之學，則又遠矣。”

28) 姚鼐, <復姚春木書>(姚鼐, <惜抱軒詩文集>, 293쪽) 참고

29) 姚鼐, <晚香堂集序>: “先生嘗一至桐城，謁吾世父於里，鼐適他出，惟世父語鼐，‘永君伉直誠篤君子也。’ ……讀之得其度越流俗之槩，音和而調雅，情深而體正，益以信吾世父之言不虛。 ……況區區文墨辭翰之事，僅稱爲詩人，豈先生意哉？雖然，後之學者欲知先生之志與人，讀其詩，亦舉可想見云。”

한 관점은 〈贈錢獻之序〉에서 더욱 명확히 피력되고 있다.

명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은 공령에 실린 것들을 늘 들은 이야기라고 자못 꺼렸을 뿐만 아니라, 비루한 학자들이 옛 것을 살피지는 않고 현재에 얽매이는 것 또한 싫어하였다. 이에 옛 사람의 명물, 제도, 훈고, 문자와 산술만을 탐구하며 박학함을 따지고 빈틈을 찾아 공박하는 것으로 공을 삼았다.³⁰⁾

위의 언술에서 우리는 고증학에 대한 예의 비판적 시선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요내의 또 하나의 문제의식을 간취할 수 있다. 바로 ‘현재에 얽매인 것’도 싫어한다고 고증학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곧 그들이 현실 문제에 대해 도외시하고 있음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위의 인용문의 앞부분에서 요내가 성리학과 시대의식을 직접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명대에 훈군의 폭정이 누차 일어났을 때, 사대부들은 기강을 유지하고 절의를 명확히 지킴으로써, 명나라가 오래 존속한 뒤에야 망하게 하였다. 그것이 송유들이 학문을 논한 효과이다!³¹⁾

요내는 방법론으로서 고증의 유효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지만, 고증이 학리적 관심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내세운 궁극적 가치로서의 궁행 속에는 개인의 수양뿐만 아니라 세상으로의 실천이라는 덕목 역시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글은 사고관을 그만두기로 맘먹은 바로 직전 해에 그가 남쪽으

30) 姚鼐, 〈贈錢獻之序〉: “明末至今日, 學者頗厭功令所載爲習聞, 又惡陋儒不考古而蔽於近, 於是專求古人名物制度訓詁書數, 以博爲量, 以窺隙攻難爲功.”

31) 姚鼐, 〈贈錢獻之序〉: “當明佚君亂政屢作, 士大夫維持綱紀, 明守節義, 使明久而後亡, 其宋儒論學之效哉!”

로 내려가는 錢獻之에게 쓴 글로, 사직을 앞둔 당시의 그의 심회가 깊이 아로새겨져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요한다. 앞서 진평원이 말한 바, 문통의 구축이라는 것이 요내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오늘날 학자들은 뜻밖에 일체를 바로잡고자 마음먹고 오로지 한학을 으뜸으로 삼는 것을 지극하다 여기고 정주를 공박하는 것을 능력으로 간주한다. 한 두 명의 명성을 좋아하는 이들이 제창하여 서로 이끌며 본받아 결국은 크나 큰 학술의 해가 되었다. 한인의 논의는 송학에 유익하여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소를 구분하지 않고 호오를 따지지 않으니, 이것이 지금 학자들의 병폐로, 더욱이 예전 시문을 닦는 사인들이 한 선생의 말을 고수하여 협애함의 폐단에 빠진 것보다 심하다. 박문강기로 송대 군자들이 남긴 바를 보조하면 옳지만, 송대 군자들을 능가하고자 한다면 잘못이다. 내가 예전 경사에 있을 때, 대진 무리들과 왕래하면서 이 일을 논한 적이 있고, <증전헌지서>를 써서 이러한 취지를 밝히었으니, 내 스스로 능력이 미약하고 소외된 것을 헤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리에 있어서 묵묵히 있을 수가 없었을 따름이다.³²⁾

요내는 또 다른 글을 통해 당시 학술계에 대해 <증전헌지서>를 썼노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스스로 능력이 미약하고 소외된 것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술회로부터 당시 사고관 내에서 요내의 고립에 대한 심정과 함께 당시 학자들의 학술 태도에 대한 요내의 우려, 그리고 그를 바로 잡기에는 자신의 힘이 너무나 약함을 통탄하고 있는 심정 등등을 읽어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의 필봉이 고증학 그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앞에서, 삼자합일설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그는 고

32) 姚鼐, <復蔣松如書>: “今世學者, 乃思一切矯之, 以專宗漢學爲至, 以攻駁程朱爲能, 倡於一二專己好名之人, 而相率而效者, 因大爲學術之害. 夫漢人之爲言, 非無有善於宋而當從者也; 然苟大小之不分, 精粗之弗別, 是則今之爲學者之陋, 且有勝於往者爲時文之士, 守一先生之說, 而失於隘者矣. 博聞強識, 以助宋君子之所遺則可也, 以將跨越宋君子則不可也. 鼐往昔在都中, 與戴東原輩往復, 嘗論此事; 作送錢獻之序, 發明此旨, 非不自度其力小而孤, 而義不可以默焉耳.”

증의 방법론 역시 주요한 학술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었기에, 상기 문장에 담긴 당시 요내의 심정과 지금까지 살펴본 그의 고민을 종합해 볼 때, 단지 당시 학술계가 한학 일변도로 치달았던 상황 속에서, 송학에 대한 강한 수호의지를 가진 요내에게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곳이었을 것이며, 결국 거기에서 탈출하는 고육지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학사나 관련 연구의 보편적 설명 방식으로는 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가 불만을 삼고 있는 것은, 한학이 아니라 한학자들의 태도, 곧 정주를 비판함으로써 성현의 뜻에 도달하는 정도를 유린하여 결과적으로 학문을 황폐화 하고 나아가 성현의 뜻을 새겨 세상에 유익한 실천으로 견인해내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요내의 고증의 ‘학술을 위한 학술’의 태도, 그 아카데미즘에 사로잡혀 세상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다. “고증으로 판단하면 적을 맞서기에 유리하니 변호하는 이가 한 마디도 꺼낼 수 없게 하지만, 학자들로 하여금 깊이 깨달아 흡족히 사람의 마음에 들어맞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의리, 문장에 보다 달려있다.”³³⁾는 말은 당시 고증학자들의 학술 방법에 대한 그의 우려를 잘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요내의 선택은 참된 인식을 가진 사인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결국 중앙 정계에 넓게 포진한, 동시에 관방으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고 있음으로써 고증학파의 온상으로 변한 중앙 그리고 사고관이라는 학술지형을 벗어나 그 대안으로서 중앙이 아닌 지방이라는 공간, 그리고 대항 학술공간으로서 서원을 택하게 된 주요 동력이었을 것이다. 더불어 팔고문 교육이 그 주된 내용의 하나일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33) 姚鼐, 〈尚書辨僞序〉: “夫以考證斷者, 利以應敵, 使護之者不能出一辭. 然使學者意會神得, 覺犁然當乎人心者, 反更在義理, 文章之事也.”

V. 나가며: 桐城派는 ‘文派’인가

천하의 소위 文章이란 모두 사람들의 말을 종이 위에 적은 것일 따름이다. 말에 어떻게 호오가 생길 것인가. 이치에 합당하고 일에 절실하면 그 말이 훌륭한 것이다. 지금 세상의 책을 읽는 이들은 그저 문사가 되기를 구한다. 옛 사람들이 ‘일단 문사가 되면 볼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였으니, 정신을 소모하고 세월을 허비하여 볼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니 또한 애석하지 않은가! 그저 글을 지었을 뿐, 이치와 일에 합당하지 않다면 이는 볼 만한 것이 없는 글일 따름이다.

내 고향의 汪稼門 상서는 평생 동안 말과 행실을 별개로 구분하려 하지 않고 위로는 천자의 명을 받들어 백성을 편안히 보살피는 업적을 남겼고, 아래로는 수신하여 행실에 법도가 있으며 청렴하고 근면하게 스스로를 다스렸다. 그가 부지런히 힘써 행한 것은 군자의 일이요, 흥미진진하게 말을 하는 것은 군자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와 글은 수식의 화려함이 없고 성정을 다스리는 실질을 갖추었다. 士人으로서 그 말을 지키면 훌륭한 선비이리라. 벼슬아치가 업무를 처리할 때 그가 쓴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하기를 지켜야 할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어찌 문사라 논할 수 있겠는가!³⁴⁾

요내가 생각하는 고문은 성리학을 지향하는 것이며, 또한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학술 지향은 성리학을 매개로 하지만 결코 성리학에만 안주한 것도 아니었다. 진평원은 방포에 대한 평어, 곧 “학행으로는 정주의 뒤를 계승하고, 문사로는 한유, 구양수 사이에 위치한다”³⁵⁾는 말을 끌어와

34) 姚鼐, 〈稼門集序〉: “天下所謂文者, 皆人之言, 書之紙上者爾。言何以有美惡, 當乎理, 切乎事者, 言之美也。今世上之讀書者, 第求爲文士, 而古人有言曰: ‘一爲文士, 則不足觀。’夫靡精神銷日以求爲不足觀之人, 不亦惜乎! 徒爲文而無當乎理與事者, 是爲不足觀之文爾。吾鄉汪稼門尚書, 其生平不欲以言行分爲二事。上承天子之命, 有撫安衆庶之績; 下立身行己, 有清慎之修。其所孜孜而爲者, 君子之事也; 津津而言者, 君子之言也。故其詩與文, 無鞞帨組繡之華, 而有經理性情之實。士守其言, 則爲端士。歷官者遇事, 取其所記一一行之, 如繩墨之可守。此豈可以文士論哉?”

35) 學行繼程朱之後, 文章在韓歐之間.(王兆符, 〈方望溪先生文集序〉)

동성문과가 표방한 것은 도통에서는 정주를 추종하고, 문통에서는 한유, 구양수를 흠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동성과를 거론할 때면 많은 문학사들이 즐겨 인용하는 문장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리학과 문장을 중심 양대 축으로 삼았다고 개괄해버리는 것만으로는 요내의 뜻을 전달하기란 태부족이다.

나아가 그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적어도 그의 기획 속에서 동성과는 문과였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말한다면, 동성‘문과’는 요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재주가 뛰어난 이들은 詞章과 聲律의 학문에 뛰어나기를 구하고, 학식이 깊은 이들은 名物, 制度를 널리 연구하면서, 의리를 어리석은 말로 싫어하고 송대 현인들을 우월하다고 여긴다.³⁶⁾

이와 같은 언급은 요내가 사장과도 고증과도 한 발 떨어져서 당시 학술 지형을 응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그의 ‘삼자합일설’에서 문장이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하더라도, 요내는 聖人之學을 보조하는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桐城 家學을 꽃피우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리학도 고증학도 그의 장기는 아니었으며, 더구나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을 훌륭하게 해낼 만큼의 능력도 없었다.

결국 그의 큰 기획에도 불구하고 그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한 그의 학술적 자산으로서 기댈 곳은 문장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서원이라는 공간이 그의 학술 전수의 주 무대였다는 점, 그리고 성리학을 발양하는 제도로서 팔고문에 대해 긍정적 시선을 가졌던 점 등 역시도 문장 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간접적 환경으로 작용하였을 테다.

36) 姚鼐, 〈停雲堂遺文序〉: “美才藻者, 求工於詞章聲病之學, 強聞識者, 博稽於名物制度之事; 厭義理之庸言, 以宋賢爲疏闊”

고인의 글이 어찌 문장일 따름이겠는가. 도의를 밝히고 풍속을 바로잡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군자의 뜻이요, 문사가 그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군자의 글이다. 문사에 통달하면 도의가 밝혀지고 문사에 어두우면 취지가 모호해진다. 내가 이를 추구한지 수십 년이 흘렀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읊조리고 손으로 쓰면서, 그 호오를 따지고 그 경중과 과다를 헤아리며, 아침에 생각하고 저녁에 반복하며 모든 사욕을 단념하였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옛 사람의 뜻이 요원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마치 섬돌과 자리에 앉아 그 음성과 용모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찌 즐거워하며 날마다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³⁷⁾

오랜 세월이 흐른 동안 자신의 학술적 노정에 슬회를 담고 있는 이 글에서 여전히 문장은 근본적 위상에 놓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옛 사람의 뜻을 얻기 위한 학술적 지향과 수신, 궁행에 대한 군자에의 요구가 관철되고 있다. 문사에 대한 연마 역시 그를 위한 일환임은 변함이 없지만, 눈에 띄는 점은, 그의 학술적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한 문사의 실현에 기울이는 요내의 부단한 노력이다. 이런 결과, 그와 그의 문하제자들은 문파로 인식되었고 또 그와 같이 정체성이 확보 또는 부여되어갔던 것이다.³⁸⁾ 그리고 이런 거시적 흐름에만 주목하여, 기존 문학사에서는 ‘文以載道’를 주된 정체성으로 삼던 ‘고문가’의 전통에서 동성파는 청대 고문 전통을 잇는 최대의 고문파라고 ‘간편하게’ 정리해버린 셈이다.

37) 姚鼐, <復汪進士輝祖書>: “夫古人之文, 豈第文焉而已, 明道義, 維風俗以詔世者, 君子之志; 而辭足以盡其志者, 君子之文也. 達其辭則道以明, 昧於文則志以晦. 鼐之求此數十年矣, 瞻於目, 誦於口, 而書於手, 較其離合而量劑其輕重多寡, 朝爲而夕復, 捐嗜捨欲, 雖蒙流俗訕笑而不恥者, 以爲古人之志遠矣, 苟吾得之, 若坐階席而接其音貌, 安得不樂而願日與爲徒也.”

38) 요내 사후인 19세기 중반에 주로 활동하였던 吳敏樹(1805~1873)는 ‘文派’에 관해 논한 글, <與筱岑論文派書>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동성문파’란 건륭 연간 요내로부터 시작되었다.”(今之所稱桐城派者, 始自乾隆間姚郎中姬傳.)고 말한 바 있다. ‘문파’라는 호명과 그 기원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동성파를 ‘문파’라고 한정지었던 지금까지의 시선들은 지나치게 고문에 주안점이 두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요내의 문제의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장이라는 영역에 한정하고 보더라도, 고문이라는 글쓰기의 필요성과 가치 또한 인정을 하고 이론을 깔고 다듬으며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여타 사인들과 달리 ‘고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문파’로 호명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조명은 문인이나 문학작품으로만 제한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당시 그들이 가진 학술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를 돌파하기 위한 지난한 고민 등은 18세기 학술계를 이해하는 데 소홀히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고증학에 비해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왜 그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고 또 동성파라는 새로운 학술 지형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쾌한 해석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기실 동성파와 상향파의 구분을 둘러싼 이견들도 이런 상황과 결부된 것이다. 서로 간의 전승의 관련성은 있으나, 엄연히 ‘문파’로 간주되는 동성파와 함께 묶어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 그래서 새로운 유파의 시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시선들이 파생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인 집단, 문파라는 시선이 동성파에 대해 투사되고 있는 이상, 이런 시선 속에서는 야전 사령관인 曾國藩과 ‘아결’한 글쓰기를 추구하는 동성파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밝히고자 했던 요내의 지향을 염두에 둔다면 어떨까? 이와 관련하여, 중국번이 요내의 ‘의리’, ‘고거’, ‘사장’의 삼자합일설을 수용하고 거기에 ‘經濟’를 추가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정이 큰 혼란에 처한 상황에서, 학술적으로는 경세치용의 논의가 소용돌이치던 정국에서, 요내의 지향이 품고 있던 ‘경세’의 지향은 중국번에 이르러 하나의 새로운 기추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후기동성파의 지속적인 현실 참여 등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³⁹⁾

39) 물론 이 과정들을 몇 마디 말로 개괄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좀 더 자세한 사례와 설명들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문학사

이렇게 볼 때, 그들의 문장에 대한 수많은 이론, 그리고 그들의 글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왜 그들이 당시 상황에서 문장을 주목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파고들고, 또한 나아가 이를 통해 그들이 실현코자 하였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며, 그 속에서 서라야 우리는 그들이 품었던 뜻을 왜곡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문장가로서의 요내, 동성문파를 세운 요내가 아니라, 동시에 고증학의 범람으로 날로 세상과 괴리되어가는 학술 지형 속에서 세상을 향해 “도의를 밝히고 풍속을 바로잡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군자의 뜻이다.”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References >

1. Benjamin A. Elman, *From Philosophy to Philology: Intellectual and Social Aspects of Change in Late Imperial China*. 2001.
2. Chen, Ping-Yuan. *From literati to Scholar*. San Lian Press, 2004.
3. Guan, Ai-He. *The End of Classicism*. Shanghai Literature Press, 1998.
4. Mark C. Elliott. *Emperor Qianlong: Son of Heaven, Man of the World*. 2009.
5. R. Kent Guy. *Emperor's Four Treasuries: Scholars and the State in the Late Ch'ien-lung Era*. 1987.
6. Timothy Brook. *The Troubled Empire: China in the Yuan and Ming Dynastie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7. Willian T. Rowe. *China's Last Empires: The Great Qing*. 2009.
8. Wang Da-Min. *Yao Nai and Qian Jia Schools*. School Press, 2007.
9. Yao Nai. *Xi Bao Xuan anthology*. Shanghai old book Press, 1992.

적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우선 부족한 설명을 무릅쓰고 제시해본다.

10. Zhou Zhongming. *Studying on Tongcheng school*. Liaoning University Press, 1999.

<참고문헌>

1. Benjamin A. Elman(양휘웅 옮김),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서울: 예문서원, 2004.
2. 陳平原, 《從文人之文到學者之文》, 北京, 三聯書店, 2004.
3. 關愛和, 《古典主義的終結-桐城派與‘五四’新文學》,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8.
4. 마크 C. 엘리엇(양휘웅 옮김), 《건륭제》, 서울, 천지인, 2012.
5. 켄트 가이(양휘웅 옮김), 《사고전서》, 서울, 생각의 나무, 2009.
6. 티모시 브룩(조영현 옮김), 《하버드 중국사- 곤경에 빠진 제국》, 서울, 너머북스, 2014.
7. 윌리엄 로(기세찬 옮김), 《하버드 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 서울, 너머북스, 2014.
8. 王達敏, 《姚鼐與乾嘉學派》, 北京, 學苑出版社, 2007.
9. 姚鼐, 《惜抱軒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10. 周中明, 《桐城派研究》, 遼寧, 遼寧大學出版社, 1999.

<Abstract>

Most of the research admit no doubt that the Tongcheng school is a literary one, on this basis, and its key figure Yao Nai(姚鼐) resigned from the compilation of Siku Quanshu(四庫全書). Many researchers pointed out that the reason for his resignation was no longer acceptable

to the philology-centered academic environment.

This paper aims to reconsider the problems of existing perspectives. First, he emphasized the reason and the writing, however, these never his ultimate goal. Looking closely at his words, the reason and the writing were viewed as a medium to reach the essence of the sag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Neo-Confucianism and Zhengzhou were not his final destination in terms of his methodology. He paid much more atten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will of the sage, which prove his sense of responsibility as a nobleman.

In addition, he insisted on the importance of all of the reason, the writing, and the philology, but it should not be ignored that his emphasis was not put on any one of them, but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his academic activities is rather beyond that. His intention was in “actual practise”.

Therefore, his support for the neo-Confucianism was not just the adherence to it, rather originated in the interest in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the sage by restoring the balance through correcting the academic bias of its region. It can be understood from the extension of this recognition about his view of Eight-Legged Essay(八股文).

In this sense, the definition of literature clique, and the evaluation in history of literature can be said to have been a hindrance to a thorough understanding for the academic purpose of the Yao Nai. As a result, there still are lots of problem to understand issues associated with him and his school, this is the reason why we have to reestimate them.

Key Words : 桐城派(Tongcheng school), 姚鼐(Yao Nai), 躬行(personal practice), 士大夫(nobleman), 文學史(history of literature)

